

해상풍력 육성, 전남 지자체 뭉쳤다

9개 지자체 시장·군수협의회 결성 초대 협의회장에 박우량 신안군수 첫 회의, 규제 개혁 방안 등 논의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신안군과 목포시 등 전남 지자체가 하나로 뭉쳤다

신안군은 최근 목포신항만(주) 회의실에서 '전남 해상풍력 시장·군수협의회' (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목포시와 여수시, 고흥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9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월 목포시 등 5개 지자체장은 전남 해상풍력 산업육성 및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의회의 창립 필요성을 공감해 발기인 서명을 했다.

발족식은 각 지자체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회칙 제정, 임원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초대 협의회장으로 박우량 신안군수가 선출됐다.

협의회는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9개 지자체 간의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협의와 대책 강



전남 해상풍력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우량(가운데) 신안군수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구 등 전남 해상풍력 발전에 이바지할 정책을 건의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전력망 확충 등 규제 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에서는 현재 55개 단지 17.3GW 발전

사업허가를 받아 추진 중이다. 특히 선도사업인 전남해상풍력(주) (대표 김진철)의 국내 최초 99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2025년 상반기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lee@kwangju.co.kr

“해남미소”서 한가위 선물 준비 하세요

147개 품목 72%까지 할인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수 농수특산물 특별 할인전을 운영한다.

할인 행사는 9월 13일까지 147개 상품을 최대 72%까지 할인판매하고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명품 농수특산물로 구성된 명품꾸러미 선물 세트는 8종으로 구성된 1호부터 13종 4호까지 4가지 종류이며 가격은 3만 5000원에서 10만원 까지도.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앞선 설에는 2억 7000만원 매출을 올릴 정도로 가장 인기있는 명절 선물로 자리잡고 있다.

자연의 신선함을 담은 쌀과 잡곡 18종, 축산물 17종, 수산물 38종, 전통식품 19종, 웰빙 과일채소 24종, 건강식품 24종 등 총 147개 상품을 선보인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여름철 폭염과 고물가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가격 부담을 낮춰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우리 농수특산물을 준비했다”며 “해남의 농수특산물로 미소를 나누는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멋진 야경 감상하며 짜릿한 손맛 느껴 보세요

목포시 오늘부터 112일간 평화광장 선상 갈치낚시 운영



선상 갈치낚시.

목포시는 평화광장 갈치낚시사가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2일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갈치낚시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목포시는 관내에 신고된 어선들 중 평화광장 갈치낚시에 참여 신청한 낚시어선 35척에 대해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평화광장 앞바다는 바다와 도시공간이 공존하며 먼 거리 출조 부담 없이 20분 정도의 이동시간만으로 선상 갈치낚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초보자도 손쉽게 할 수 있어 가족단위 낚시객이 많이 찾고 있다.

평화광장 갈치낚시 참여 예약은 인터넷으로 평화광장 갈치낚시를 검색한 후 업체에 직접 전화하면 된다. 낚시배는 북항, 남항에서 출발해 목포의 야경을 감상하며 평화광장으로 이동한다.

시는 앞서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행사참여 선박 35척에 대해 ▲구명조끼 및 소화기 등 안전설비 ▲야간운항 장비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진도군 공무원,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재능기부

1건당 50만원 비용 경감 효과

진도군은 주민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 도면 작성을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신고 대상 도면은 일반인들의 경우 도면작성이 익숙하지 않아 건축사사무소 등에 1건당 평균 50만원의 비용을 부담, 작성해 왔다.

이에 건축안전팀은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도면

의 무료 작성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국민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 신뢰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한다.

도면의 무료 작성 대상은 ‘허가 대상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막,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이다.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공무원에게 의뢰하면 된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



완도해경, 31일까지 무사증 입국 외국인 단속

완도해경이 오는 31일까지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완도-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에 대해 무사증 입국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무사증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완도해경은 무사증을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지난해와 비교해 8배 늘고, 올해에만 출입국 사법

25명이 검거되자 이 같은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오는 31일까지 해상 국경범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외사 취약지 점검, 심야시간 항구 위장 어선 점검, 여객선 불시 점검에 나선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경침해 범죄 근절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의식 선박이나 사람을 발견할 경우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1530 건강 걷기’ 참가자 20명 모집

1주일에 5번 30분 이상 걷기

영광군이 일상생활 속 걷기 습관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제2기 1530 건강 걷기’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선착순 20명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1530 건강 걷기’는 1주일에 5번 30분 이상 걷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 걷기 교실에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2일부터 10월25일까지 매주 월·

수·금요일 주 3회 생활체육공원에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총 20회 진행한다.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건강한 걷기 문화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 걷기 교실 관련 문의는 영광군보건소 건강정책팀(061-350-4823·5560·5812)으로 하면 된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